KT, MS와 대한민국 AI 혁신 위한 '자이언트 스텝'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 체결

김영섭 대표-사티아 나델라 CEO, AI·클라우드 분야 전방위 협력 본격 가동

대한민국 AI·클라우드 기술 및 산업 선도 위해 총 수조 원 규모 파트너십

한국형 ChatGPT, Phi3.5, Copilot 공동개발해 다양한 산업과 일상 속 AI 저변 확대

…로소프트와 손잡고 대한 … 양장선다.

…kt.com)는 … 미국 워싱턴 … 사에서 AI·… 의 긴밀한 협력을 … 십을 체결했다고 4일 밝…

이 협약식에는 KT 김영섭 …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 C… 겸 이사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 협약으로 KT와 마이크로소프트는 AI·클라우드 연구개발 공동 프로젝트, 한국형 AI·클라우드·IT 서비스 개발, AI·클라우드 이노베이션 센터(Innovation Center) 구축, AI·클라우드 인재 양성을 함께한다.

특히 양사는 국내 AI·클라우드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대규모의 협력과 지원 영역을 9월까지 상세화 … 정이다. KT는 마이크로소프트 … 을 활용해 공공과 금융 분… 상으로 데이터 및 AI주권 … 한 수준의 보안성을 강화 … 클라우드', '소버린 AI'를 개…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KT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단순 기술 … 협력을 넘어 상호간 전략적 파트너가 … 쌓아온 국내 사업 경험과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력이 결합돼 한국에 경쟁력 있는 AI 혁신 파트너로 거듭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마이크로소프트와 전방위적 협력으로 시장 …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한국의 디 … 신에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최 … 다"고 말했다.

… MWC 현장에서 AI와 … 전과 사업 전략을 … 다. 이를 위해 … 인재 영입, … 대한다는 … 2024 … 로 … 회 … KT … 표가 AI … CT Comp … 에서 MWC에서 … 혁신부문장 오승 … 사장이 AI 역량을 강화해 전사 적 … 하는 'AI 네이티브' 추진 방 … 트폴리오 다각화를 위 … 에 대해 발표했다. … 서 "이제 KT …

고객의 비즈니스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디지털 혁신 파트너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AI 및 디지털 분야 전문인력을 경력직을 포함해 올해 최대 1,000명 수준으로 영입하고, 내부 교육 강화와 AI 내재화를 통해 KT의 DNA를 AI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김 대표는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최고 수준의 통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선보인 저력 있는 나라"라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KT의 성장을 위해 AI 인재를 확보하고 이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KT가 AICT 서비스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글로벌 테크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파트너십으로 빠르게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글로벌 최고 수준의 노하우와 역량을 빠르게 내재화할 것"이라고 개방형 파트너십 확대의 취지를 설명했다.

KT는 AICT 회사로의 혁신 달성을 위해 전사 차원의 AI 대전환에 나선다고 밝혔다.

KT는 올해 사원부터 임원까지 전 직급에서 AI 등 ICT 전문 인력을 1,000명 규모로 채용하며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을 다진다. 나아가 KT의 AI 리터러시(AI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강화를 위해 KT 임직원들의 AI 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클라우드와 AI를 포함한 엔지니어링 영역까지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AI 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첫 단계로 전사 IT 기본역량 향상을 위한 'AX 디그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료 조건을 만족해야 다음 단계를 수강할 수 있는 서바이벌 형태로 진행되는 이 과정은 KT 직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약 6개월에 걸쳐 ▲AI모델링 ▲데이터 사이언스 ▲디지털 리터러시 ▲클라우드 인프라 ▲KT 데이터 분석 등의 세부 과정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AI와 IT 관련 공인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며, 응시료와 함께 자기계발 격려금을 지급한다. 참가자들은 실제 업무에서 AI를 적용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수행할 수 있다.

한편, KT는 2022년부터 카이스트, 포항공대, 한양대 등 국내 대학과 함께 AI 석사과정을 마련하고 AI 연구와 산학연계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인재를 직접 육성해 채용까지 연계하는 방식으로도 AI 인재 확보에 나서고 있다. 3월부터는 AI 계약학과 졸업생이 KT에 처음으로 입사해 AI 개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KT는 AI 네이티브 환경을 내재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한다.

'믿:음'을 이용해 지니 TV의 콘텐츠 마케팅 문구를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AI로 콘텐츠의 흥행등급을 예측하여 KT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활용한다. 그리고 이미지와 영상을 자동 분석하고 화질을 개선해주거나 포스터 등을 생성해주는 플랫폼을 개발해 미디어 사업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KT 김영섭 대표는 "잘 하고 있는 분야에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더해, KT가 꿈꾸는 미래가 KT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I로 병원 예… 접수까지 척척" KT, 종합병원에 도입한 … 보' 기능

디지털 환경이 낯선 노년층 대상 AI로 수월한 예약 지원

KT(대표이사 김영섭)가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 고객센터에 도입한 'KT 에이센(A'cen)'의 'AI 보이스봇' 기능을 고도화해 신규 고객… 예약접수를 지원한다고 8… KT 에이센(A'cen)… (인공지능… …

예를 들어, 고객이 병원 고객센터로 전화해 본인인증을 마치고 "이비인후과 예약" 또는 "부비동 질환 … 같이 희망하는 진료과… 누리봇이 자… 한 …

…취소 등 예약 일정을 관… 수행했다. 여기에 예약접… 더해지면서 시간의 제약 없이… 가능하고, 챗봇이나 보이는 AR… 디지털 화면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 도 음성 통화만으로 손쉽게 예약할 수 … 있게 됐다.

KT, 생성형 AI 활용한 우수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KT(대표이사 김영섭)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신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미라클100' 경진 대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미라클100은 KT 임직원들이 AICT … 역량으로 실제 사업화 가능한 서비… 스를 개발하는 해커톤이다. 올해 처음 … 개최됐으며 서바이벌 예능 구조를 … 차용해 '궁극의 생성형 AI 서비스를 … 위한 100인의 생존 경쟁'이라는 컨셉 … 으로 진행됐다.

미라클100은 아이디어의 사업화 가능… 성을 신속하… 됐다. 생성형 AI … 시 일반적인 기획-개… 않았다. 기획자, 개발자… 구성된 팀이 고객의 반응을 … 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을… 제품'(Minimal Viable Product, M…)으로 개발했다.

5월부터 세 달간 386명의 직원이 참가 … 해 170여 개의 신규 서비스 아이디어 … 를 제안했다. 이후 서류 심사를 통해 … 선발된 직원 100명이 25개 아이디어로 … 팀을 구려 예선에 참가했다.

예선을 통과한 10개 팀은 지난 20일 …

KT그룹, AI로 미디어·콘텐츠 산업 혁신 AICT 컴퍼니 전략 가속

예능은 'ENA', 드라마는 '스튜디오지니' 양 날개 전략 강화

KT그룹이 인공지능(AI) 역량을 바탕으로 그룹의 미디어 사업 혁신을 주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K-콘텐츠 확산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AICT 컴퍼니 전략 실행에 속도를 낸다.

KT는 스카이라이프티브이(skyTV), KT스튜디오지니와 29일 오전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에서 'KT그룹 미디어데이'를 개최했다.

올해 4회째를 맞는 미디어데이에서 KT그룹은 그룹의 미디어·콘텐츠 사업 성과를 알리고 앞으로의 사업 전략을 소개했다.

이날 KT는 KT그룹 미디어 밸류체인 전반에 AI 기술을 접목한 혁신 서비스를 소개했다. skyTV는 개국 20주년을 맞이해 AI 보이스로 만든 'ENA' 채널의 새로운 슬로건과 예능 라인업을 공개하고 KT스튜디오지니는 드라마 라인업과 글로벌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KT 미디어플랫폼사업부장 김훈배 전무, skyTV 김호상 대표, KT스튜디오지니 김철연 대표 등 KT그룹의 미디어 사업 관련 주요 임원들이 참석했다.

KT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TV로 보이는 전 과정에서 AI 기술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선, AI로 드라마 흥행성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해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의 투자에 활용하고 있다. 또 클릭 한 번으로 오래된 영상의 화질을 높이거나(업스케일링), TV의 화면 크기와 화면 비율에 맞춰서 자동으로 영화 포스터를 디자인하는 데에도 AI 기술을 이용한다. 이 외에도 생성형 AI로 마케팅 문구를 작성하거나, 방송이 24시간 끊김이 없이 잘 송출되고 있는지 품질을 관제하는 영역에서도 AI 역량을 활용하고 있다.

KT는 2023년 한 해 동안 skyTV와 KT스튜디오지니를 통해 총 30편의 오리지널 예능과 드라마 콘텐츠를 제작해 ENA 채널과 '지니 TV'를 통해 공개했다.

KT의 미디어 그룹사는 올해 재작년을 극대화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예능 제작은 skyTV가 주도하고, 드라마는 KT스튜디오지니가 담당하는 K-콘텐츠 양 날개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skyTV는 올해 다양한 장르의 예능 프로그램 12편을 방영할 예정이다. 이날 올해 최고 기대작으로 꼽히는 <백종원의 레미제라블>을 최초로 공개했다. <백종원의 레미제라블>은 백종원이 이자 마지막으로 찾아온 기회를 잡기 위해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함께 만들어가는
그래서 더 독보적인 AI

KT는 Microsoft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AI 시대를 엽니다.

kt Microsoft

kt, 당신과 미래 사이에

팬메이드 K-AI 아이디어 챌린지
K-AI로 달라질 새로운 세상에 대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응모기간
10월 30일 (수) - 12월 31일 (화)